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알게 하라

21명의 사제단 참여해 연수 및 미사 봉헌



서울대교구 북미주사제회의 기념미사를 공동집전한 유경춘 주교와 사제들.

【펜실베이니아】 서울대교구 북미 주교관사제단 연수가 지난 12일~15일 필라델피아 한인성당(주임 김순진 요셉 신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서울대교구 유경춘 주교와 21명의 신부가 참석해 그동안 사목 현장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동체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연수 둘째 날 13일(화) 밤에는 유경춘 주교의 주례 하에 연수에 참석한 사제들과 공동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유 주교는 강론에서 “최양업 신부는 박해시대 때 조선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걸어 다니며 몰래 숨어서 교우촌을 찾아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성사를 집전했다. 40세에 열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하느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불꽃처럼 태우셨다. 교우분들을 위해 미국에 와 계신 신부님들도 결국 최양업 신부님의 후손들이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제들은 신자가 없다면 혼자 어디에 대고 복음을 선포하겠는가?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제겐 아주 소중한 존재다. 사제들은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존재하는 것이고 신자들도 신부들을 기도 중에 기억하고 힘이 되어 주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 그걸 통해서 하느님 사랑이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신부들은 성품성사 때 축성성유로 인호가 하나씩 더 새겨져 있다.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알게 해 주라고 그렇게 삶을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가서 도와 주라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이라고 했다.

미주지역 서울대교구 사제단 대표인 김영관 도미니코 신부(타코마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 주임)는 인사말에서 사제단 모임을 위해 준비해 준 필라델피아 공동체 측 모두에게 감사말을 전하며 내년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주님의 빛이 더 찬란하게 다른 공동체에게도 비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순진 신부가 참석자들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계속 터져 나와 축제의 한마당처럼 성전이 들썩였다. 특히 비행기를 3번 갈아 타고 13시간 만에 도착한 알래스카 민경일 신부, 시카고에서 자동차로 12시간 운전해서 온 유승원 신부, 그외 캐나다 이대수 신부와 2명 유학생 신부도 함께 했다.

내년 모임은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에서 열린다.